

## 재봉틀로 봉합한 한 장의 샌드위치

더운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이 오면 빨리 가을 옷을 입고 싶어하는데, 추동의 트렌드는 패드를 넣은 듯이 두께가 있어 보이나 가벼운 옷감을 사용한다든가 퀼팅이나 본딩한 옷감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퀼팅은 겉감과 안감의 사이에 판상의 솜(中綿, 속통이라고 한다)을 끼워 재봉틀로 봉합한 한 장의 샌드위치 상태의 옷감이다. 속통에는 공기를 함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겉감과 안감에 끼워서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공기는 그곳에 머물러서 따뜻하고 가벼운 옷감이 만들어진다. 속통에는 합섬의 솜을 넣어 성글게 봉합하는데, 겉감에 나타나는 바느질 땀에 네모, 세모, 별모양, 꽃무늬 등을 넣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개발되어 있다. 안감에는 한냉사 등 얇은 원단이 사용된다.

본딩은 다른 2매의 원단을 붙여 1매의 천의 상태로 한 것이다. 서로 다른 외관의 천과 천이라든가 서로 다른 색끼리 또는 색상물과 무늬물, 직물과 얇은 저지, 직물과 보아 등을 접합시킨다. 또는 천과 우레탄 폼을 접합시키기도 한다. 천과 필름 상태의 시트를 접합시킨 것을 라미네이트라고 한다. 이러한 옷감을 사용하면 리버서블이라든가 더블페이스의 효과를 즐길 수 있는 옷을 만들 수가 있다. 물론 보온효과가 높은 옷이라든가 방수효과가 있는 옷 등을 만들 수도 있다. 접합방법으로는 접착제를 이용하는 방법, 접합시키는 어느 쪽인가를 열로 녹여 다른 한쪽에 융착시

키는 방법 등이 있다.

\* 퀼팅(quilting) :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모사 등을 넣고 무늬를 두드러지게(릴리프) 수놓은 서양자수. “심 넣은 자수” 또는 “솜 넣은 자수”를 뜻한다. 전체에 심을 넣고 수를 놓아 무늬를 나타내는 잉글리시 퀼팅과 부분적으로 심을 넣어 부풀게 하는 이탈리아 퀼팅이 있다. 보온성이 필요한 쿠션 · 재킷류 · 실내복 · 어린이옷 등에 쓴다. 겹감은 신축성이 좋고 부드러운 크레이프나 새틴, 평직의 모직 · 캐시미어 · 저지 등이 좋다. 안감은 모슬린, 얇은 캘리코 · 견 등 가벼운 것이 좋다. 심은 솜 · 모사 등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화학솜을 많이 사용한다.

이탈리안 퀼팅을 할 경우 넓은 부분은 안감을 잘라 벌리고 솜을 넣어 꿰매고, 좁은 부분은 굵은 모사를 안쪽에서 꿰어 끝을 5mm 정도 남겨둔다. 마무리는 부드러운 방석이나 담요 위에 작품의 안쪽을 위로 오게 놓고, 물을 스프레이로 뿌리면서 다림질한다.

단볼 니트(슈퍼에어니트, 슈퍼스무스)라고 부르는 저지가 겨울에 등장한다.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단면의 모습이 단볼(골판지)의 단면에 유사하여 상하의 옷감 사이에 솜이 끼워져 있다. 저지 등의 편물은 일반적으로 편성 올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다. 그 때문에 겨울에 찬바람이 통과해 버린다. 결국 입고 있으면 춥다. 공기가 빠져 나가버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 있으면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볼 니트는 그것을 컨셉으로 한 저지이다. 이러한 컨셉은 퀼

팅도 마찬가지로이다.

면이라고 하면 여름철의 대표적인 소재이다. 이러한 면직물을 겹감으로 사용하여 그 사이에 솜을 놓고 재봉사로 고정시킨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온력을 갖는 윈터 코튼이 된다. 면섬유는 그 심부에 중공을 만들기 때문에 단열효과가 있다. 공기는 열을 전하는 성질(열전도율)이 극히 낮다. 외기와 신체와의 사이에 공기층을 만드는 것이 추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겹쳐 입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까닭에 저지 내의는 타당하다. 견옷감으로는 마트라 세가 있다. 이것은 부품과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끼워서 재봉사로 고정시킨 것이다. 견의 고급스러운 광택과 릴리프(떠있는 조각과 같은)한 모양이 서로 어울려 화려한 옷감이 되고 겨울철 멋내기용 상의로는 아주 좋다.

니들펀치는 크래프트(수공예적인 느낌)감이 있다. 두꺼운 옷감으로서 바닥 천에 솜 상태의 섬유를 붙인 듯한 감이 있는 것이 있다. 크래프트감이 있어 새롭게 보이고 따뜻하고 손 촉감이 부드럽다. 이러한 면상태의 섬유는 문지른다든가 뽑아도 빠지기 어렵기 때문에 착용이나 클리닝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니들 펀치는 홈텍스 타일의 깔개와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다. 니들펀치의 다루는 법은 간단하다. 바닥천의 표면에 솜을 놓고 니들펀치기의 바늘로 바닥 천에 관통시킨다. 이것에 의하여 솜은 바닥 천과 붙게 된다. 솜으로는 양모, 진면(누에고치를 풀어헤쳐 얻은 견섬유의 솜상태의 것) 등을 이용하고 있다. 솜을 사용하지 않고서 바닥 천에 모우가 있는

원단을 겹쳐서 편칭 하면 모우가 있는 원단이 바닥 천에 붙게 된다.

모직물 옷감인 경우에는 축융(직물을 경위사 방향으로 치수를 줄이는 가공으로 바닥이 치밀해지고 두께가 늘어난다)을 한 후에 편칭하기도 한다. 편칭을 데님에 겹치지 않고 행하면 오래 입은 듯한 감 즉, 빈티지감이 생기고 멋지게 보일 수 있다. 자주 행해지고 있는 워싱가공과는 아무튼 다른 맛이 나기 때문이다.